

	형상	용도
참침	말단의 1분 예리	피부를 천자하여 사혈해서 두부 신체의 열증을 사한다.
원침	침체는 원주형, 침끝은 난원형	체표를 문질러 분육간의 기체를 치료한다. 기육을 손상하지 않는다.
시침	침두가 서속형으로 둥글면서 약간 뾰족하다.	경맥을 안압하는데 쓴다. 심입해서는 안된다.
봉침	침체는 원주형이고 침두는 예리한 삼각뿔 모양이다	사혈하여 응종, 열병을 치료
피침	길이 4촌, 너비 2푼 반, 칼날모양	응농 등 외증의 할치에 쓴다
원리침	침두는 약간 큰데 침체는 도리어 세소하며 둥글고 예리함	응종, 비증에 심자한다
호침	길이 3.6촌, 침체가 털처럼 가늘고 침두는 모기주둥이와 같다	한열, 통비를 치료
장침	길이가 7촌, 침두는 예리하고 침체는 가늘고 길다	심자하여 深邪遠庫(심사원비)를 치료
대침	길이 4촌, 침체가 굵고 둥글다	寫水. 관절을 통과할 수 없는 수기를 취한다. 후세인은 화침으로 나력유옹 등의 증을 치료

五刺, 九刺, 十二刺

1) 오자 : 피, 맥, 근, 육, 골 의 서로 다른 부위의 병증에 따라 활용하는 다섯 가지의 자침 방법에 대해 설명

명칭	자침방법	부위	상응장부
半(반)자	천자, 속히 발침	피	폐
豹文(표문)자	다자, 출혈 (자락요법)	맥	심
關(관)자	근의 말단에 자입	근	간
合谷(합곡)자	분육간을 계족상 자입 (약간 사자)	기육	비
輸(수)자	직입직출하되 심자	골	신

(1) 반자 : 피부에 천자하여 빠르게 출침하므로 털을 뽑는 모양과 유사 천자하여 근육층에는 이르지 않는 방법. 구침 중 모자법이 비슷하며 다만 반자가 조금 더 깊게 자입한다.

(2) 표문자 : 홍종열통 같은 종류의 병증 치료

(3) 관자 : 건이 골에 부착되는 부위 위에 자침. 관절염이나 근육구급의 근비증을 치료.

(4) 합곡자 : 기육 중에 사자하여 계조의 형태와 같이 몇 개의 방향으로 투자하는 자법으로 근비를 치료. 자침 시 기육이 풍부한 부위에 먼저 직자하여 득기 후 다시 피하까지 침을 끌어 낸 후 좌우로 나누어 사자.

(5) 수자 : 수직으로 자침과 발침을 시행하여 골격까지 심자하는 자법으로 골비를 치료.

※ 거자와 무자의 구별

	巨 刺	繆 刺
발병 부위	병사가 경맥에 있다	병사가 락맥에 있다
진단 근거	동통이 좌측에 있으면 우측의 맥상에도 병리변화가 있다.	신체에 동통이 있어도 삼부 맥상에는 병리변화가 없다
자침 부위	자경. 좌측에 유병하면 우측의 경혈을 취하고, 우측에 유병하면 좌측의 경혈을 취한다.	자락. 유관한 경맥의 사지단의 정혈과 피부의 울혈된 락맥을 사한다

九刺

- <영추·구침>에서 “침자법에는 9가지가 있는데 아홉 가지 病變과 응한다.” 여기에서 변이라는 것은 병변의 성질에 따라 동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1) 俞刺

- 오장에 병이 있을 때의 침자법으로 장부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경락의 주슬관절 이하 榮穴과 俞穴을 취하고 背部에 상응하는 五臟俞를 취하는 방법.
- 현재 임상에서 오장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俞刺를 선혈원칙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폐병에는 태연·폐수를 취하고 신병에는 태계·신수를 취하는 등이다. 俞刺는 輸刺로 표기하기도 함.

(2) 遠道刺

- 병이 안면이다 구간 등의 상부에 있을 때 하지의 혈위를 취하는 방법.
- 육부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육부의 合穴을 취함.
- 질병부위와 자침혈위가 비교적 서로 遠位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도자’라고 칭한다.
- 예를 들면 위병에 족삼리를 취하는 것.

(3) 經刺

- 경맥이 소통하는 부위 중에서 기혈이 응체된 부분에 자침하기 때문에 경자라고 칭함.
- 경락 어체와 기혈부족으로 인하여 국소부위의 홍종과 동통, 기타 경락과 장부의 병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해당됨.

(4) 絡刺

- 체표의 울혈된 細小絡脈을 刺하는 방법으로 淺刺하여 소락을 출혈시키므로 락자라고 칭함.
- 임상에서 응용되고 있는 각종 천자방혈법, 예를들면 삼릉침(고대의 봉침)이나 소미도에 의한 점자출혈법, 피부침 혹은 차침으로 반복하여 자침하여 방혈시키는 방법 등이 모두 락자의 범위에 해당.

(5) 分刺

- 침이 심층근육까지 다다르게 하는 자법.

- 분육은 골격에 부착하는 심층부의 근육을 지칭하며 분육간의 갈라진 틈 사이에 자침하므로 분자라고 칭함.

(6) 大寫刺

- 피침으로 화농된 응저를 절개하여 배농하는 자법.

(7) 手刺

- 병소의 피부표면에 淺刺하는 방법으로 피부가 마목불인한 浮痺症과 피부병을 치료하는데 상용되며, 또한 장부병에도 활용.

(8) 巨刺

- 이것은 左病에 右側을 취하고 우병에 좌측을 취하는 것으로 좌우를 교차해서 配血하는 치료방법.

(9) 焮刺

- 침을 붉게 달구어 체표에 자입하는 자법으로 쉬자라고 칭한다.
- 寒痺에 쓰고 국소가 작열하며 근육이 이완된 열증에는 부적함.
- 후세에 火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구자

명 칭	자침취혈의 원칙	비 고
수자	제경의 형, 수, 오장수에 자함	형, 수, 배수혈을 취혈 (오장에 병이 있을때의 침치료법)
원도자	상에 있으면 하를 취하고 輪를 자함	원위취혈, 상병취하
경자	대경의 결락, 경분에 자함	경맥에서 취혈 (경맥이 소통하는 부위 중에서 기혈이 응체된 부분에 자침하기 때문에 '경자'라고 칭)
락자	소락의 혈맥에 자함	락맥에서 취혈하여 혈락을 사 (체표의 율혈된 세소락맥을 자하는 방법)
분자	분육지간을 취함	분육에서 취혈 (침이 심층 근육까지 다다르게 하는 자법)
대사자	피침으로 대농을 자함	외증의 농을 사함 (현재의 외과로 피침으로 화농된 응저를 절개하여 배농하는 자법)
모자	피부의 浮痺를 자함	피부를 천자
거자	좌병취우, 우병취좌	좌우 교차취혈
쉬자	번침을 자하여 한비, 응저를 치함	통처에서 취혈 (침을 붉게 달구어 체표에 자입하는 자법으로 '쉬자'라고 칭/ 焮 쉬 태우다, 담금질하다)